

대학 건강캠퍼스 조성과 건강도시 : 전인건강과 공적신학

조무성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

I. 문제제기

모든 조직은 환경에 적응하고 내부갈등을 조정할 때 생존하며 발전해갈 수 있다(Bennis, 1968). 대학의 외적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학은 고령화와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학정원의 급감, AI와 4차 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응전략 부족, 취업환경의 불확실성, 대학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의 외부환경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교조직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및 행정직원은 이러한 도전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각자 맡아서 해결할 문제로 힘겨워 하고 있다. 조직의 환경의 바람이 거셀수록 그리고 이로 인한 조직내부의 맡은 일의 부담과 갈등이 클수록 그 구성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위협받기가 쉽다. 이러한 위협이 가속화될수록 조직안팎의 문제해결에 적신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기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노력에 비해 위협받는 건강과 삶의 질의 관심과 개선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입시경쟁에 내 물린 초중고의 학생들에게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대학에 와서는 입시에서 해방되었다는 마음에서 학생 자신도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도시 안에 존재한다. 대학구성원의 건강은 대학의 내부에서 뿐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이 뒷받침 될 때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다. 그 사회의 물, 공기, 토양의 질이나 경제상황, 생활방식, 의료제도, 시정의 정책 등이 함께 맞물려 있다. 대학의 건강문제를 대학자체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랭커셔 대학과 중앙랭커셔 대학에서 건강증진대학(Health Promotion Universitie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WHO, 1998). 지금도 건강대학(Healthy Universities)라는 조직으로 구성원들을 포한 사회의 건강과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 건강증진학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시범사태로 줄이고 있고 건강도시에 가입한 시군구에서 건강한 학교사업을 해온 적이 있지만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사업은 이루지 않고 있고 대학에 초점을 둔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원 50주년을 맞이해서 2009년 4월 5개년 건강캠퍼스 만들기 사업을 개발했다(유승현, 2009).¹⁾ 그 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연속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1) 조무성은 우리나라에 건강캠퍼스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고대신문에 “건강도시와 함께 건강캠퍼스 만들기”를 학교신문에 주장했지만 학교당국에서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2007년 건강캠퍼스 협의회 준비모임이 만들어 지고 1회 건강캠퍼스 포럼을 “건강도시와 더불어 건강캠퍼스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그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이 포럼은 지속되 못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 2012년 6월 1일 학제간 연구회로 건강캠퍼스도시연구회가 “학제간 연구의 공통분모: 삶의 질 향상, 행복, 전인건강”의 주제발표와 함께 창립이 되었고 2012년 9월 26일 1회 콜로키움이 “학제간 연구와 한계의 논리”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하였다. 2016년까지 4월 23일 “식품안전과 몸 건강”까지 12회 콜로키움이 계속되었다. 유승현은 ...대학내부에서 건강도시 사업과 연계한 건강캠퍼스 만들기를 제안한 사례도 있었다(고대신문, 2007).고 지적한다. 서울대에서 보건대학원 개원 50주년을 맞이해서 건강캠퍼스 만들기 사업을 제안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건강캠퍼스 구현을 위하여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십과 보다 구체적인 연간계획, 그리고 조사 및 사업 수행에 관련된 기관, 대학행정본부 등의 연결체계 수립이 우선요인이다”라는 제안이 앞으로 잘 정착되어 되길 바란다(유승현, 2009).

2017년 관악구 보건소와 서울대보건진료소와 함께 금연, 체지방축정, 우울 정신건강 상담 등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학교의 연구에 비해 건강증진대학이나 건강캠퍼스의 연구는 소수다(김영복, 2015; 황성호 등, 2009; 이성희 등; 2009, 유승현, 2009). 또한 인간의 생명과 온전한 인격체의 형성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기독교 대학의 경우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건강대학의 육성이 필요한데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대학 특히 기독교 대학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서 건강도시와 함께 건강캠퍼스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바탕과 전략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답변해야 할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캠퍼스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의 핵심개념인 전인건강은 무엇인가?

셋째,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추진할 것인가?

넷째, 기독교 관점에서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 조성의 논리와 전략은 무엇인가?

II. 건강캠퍼스의 발전과정의 개관

건강캠퍼스 조성은 영국에서 건강도시사업에 기반하여 랭카스터 대학과 중앙 랭커셔 대학의 건강증진대학 프로젝트에서 역사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건강 2010, 2020에 입각해서 미국대학건강협회(Americal College Health Association) 건강캠퍼스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건강캠퍼스 운동은 1987 년에 시작된 WHO의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건강증진대학(health promoting universities)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영국의 랭카스터(Lancaster) 대학과 중앙 랭크셔(Un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대학 등에서 헌신된 학교책임자를 비롯한 보직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작되었다(Tsouros, 1998; Dooris, 2001; 조무성, 2007; 유승현,2009). 학생들과 교수 및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를 위해 건강한 일터 및 학습과 삶의 환경을 만들고 교육과 연구에 건강증진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갖고 건강증진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건강대학(healthy Universities)의 명칭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며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영국 국가 건강대학네트워크(English National Healthy Cities Network:)에는 70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다(<http://www.healthyuniversities.ac.uk/>). 독일의 경우 독일 건강증진대학네트워크(German Health Promoting Universities(HPU) Network)에는 6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Stock et.al, 2010).

2015년 건강증진대학 오카나간 국제 헌장(Okanagan International Charter)의 비전과 목표와 핵심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1> 비전 목표 핵심개념

중요항목	내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증진대학은 현재와 미래사회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변혁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사람과 장소 및 지구의 웰빙에 기여함. 건강증진대학은 건강을 매일의 일상작업, 산업현장, 학문영역에 통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성공을 고양시킴. 동정, 웰빙, 형평과 사회정의의 캠퍼스 문화를 조성함. 캠퍼스에서 살고 배우고 일하고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함. 우리의 공동체와 더 넓은 사회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교직원과 방문객들을 위해 건강하고 지지적이며 지속가능한 학습과 일과 삶의 환경을 조성함. • 대학의 핵심사업인 학습과 연구와 지식교환에 건강과 지속가능성의 프로파일을 증가함. • 더 넓은 커뮤니티의 건강과 웰빙과 지속가능성의 연결하고 기여함.
핵심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고 전체적인 개념으로 건강(health), 건강과 연결된 안녕(wellbeing), 이와 연결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 건강 :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고 온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다 (WHO, Constitution, 1946). 건강은 모든 삶의 자원이며 삶의 대상이 아니며 신체적 능력 뿐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자원을 강조하는 적극적 개념임. 인간의 건강은 생태체제의 건강과 장소와 지구의 더 넓은 웰빙에 의존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안녕: 안녕(웰빙)은 논란이 아주 큰 개념임. 그러나 WHO의 정의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건강의 개념과 중첩되어 있음. 전통적으로 두가지 대조적인 관점이 존재함. 쾌락적 안녕(웰빙)은 쾌락추구와 고통의 회피와 주관적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 복지적안녕(웰빙)은 인간의 번성과 잠재력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음(Ryan, R.M. and Deci, E.L., 2001). •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발전 : 이것은 미래에 까지 영속되는 것을 의미함. 이 용어는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현재의 욕구를 충족하는 발전(Brundtland Report, 1992)과 지구의 생활지지체제를 보호하고 높이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 과정 (Forum for the Future)을 의미함.

출처 : <http://www.healthyuniversities.ac.uk/healthy-universities/>

미국은 2010 건강한 국민(Healthy People 2010)과 2020 건강한 국민 (Healthy People 2020)의 하위 영역에서 미국대학건강협회(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ACHA)를 통해 건강캠퍼스 2010과 건강캠퍼스 2020을 다루어 왔다 (<https://www.acha.org/healthycampus>). 건강캠퍼스 2020은 전국의 대학캠퍼스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캠퍼스 2020에서 제시된 전략은 전통적 수준의 교육, 진단, 치료, 보건의 전통수준의 개입의 범위를 넘어 확장한다. 건강, 학문, 학생의 일상, 행정체제의 협동적 노력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기관들의 건강한 환경과 행태를 조성할 수 있다. 건강캠퍼스 2020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국민건강목표를 가지고 있고 생태적 접근(ecological approach)과 MAP-IT(MAP-IT (Mobilize, Assess, Plan, Implement and Track) 분석틀을 활용한다. 이것의 비전과 사명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건강캠퍼스 2020의 비전 사명 목표

중요항목	내용
비전	모든 구성원이 오래 건강한 삶을 누리는 캠퍼스 커뮤니티
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의 전국적인 건강개선의 우선순위를 확인한다. • 캠퍼스 커뮤니티의 건강과 질병 장애 발전의 기회의 결정요인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증가시킨다. • 고등교육의 기관에 이용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세부목표와 목표를 제공한다. • 정책을 강화하고 실재를 개선하며 행동변화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증거와 지식에 의해 추진되는 행동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취하도록 격려한다.
전반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이 좋은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학문적 성공, 생산성, 학생과 교수와 직원의 관계유지, 평생학습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 병의 예방, 장애, 손상, 조기사망에서 해방된 높은 질의 장수의 삶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 건강형평성 달성, 불평등 제거, 완전한 캠퍼스 건강 개선을 추구한다. • 삶의 질 건강한 발전, 적극적 건강행태를 촉진한다.

출처 : <https://www.acha.org/healthycampus>

II. 전인건강 및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의 개념

1. 전인건강의 개념과 삶의 질, 행복, 샬롬

1) 전인건강의 개념

건강이라는 말의 의미는 질병의 반대명제(antithesis), 균형상태(balanced state), 성장(growth), 기능성(functionality), 적합성이 좋음(goodness of fit), 온전성(wholeness), 안녕(wellbeing), 초월성(transcendence), 강화(empowerment), 자원(resource)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Sheinfeld-Gorin & Arnold, 2006: 3-17). 건강개념은 이처럼 여러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의미로 국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안녕(wellbeing)이라는 의미가 보다 친근한 개념인 것처럼 보인다. WHO는 건강개념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전인건강은 인격체의 건강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건강도 포함하므로 앞서 지정한 WHO의 건강개념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즉 WHO가 말하는 신체적·정신적 안녕상태는 인격체의 건강을 의미하며 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는 인격체를 둘러싼 환경건강의 부분을 말한다²⁾. 이처럼 WHO는 포괄적인 건강개념을 갖고 있다(Phillips & Verhasselt, 1994: 3).

건강개념의 범위는 인간의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을 육체적 존재, 영적 존재, 정신적 존재, 사회적 존재, 환경적 존재 중 어느 하나에만 국한한다면 건강개념은 총체적인 성격이 결여된다. 보통 건강하면 육체적 건강을 연상하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인간을 육체적 존재나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WHO가 건강개념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안녕상태는 영어로 직역하면 잘(well) 있는 것(being)이다. 우리말에 있어서 편지 서두에 안녕하십니까? 잘 있습니까?를 보면 이러한 개념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WHO의 건강개념은 신체, 정신, 사회가 잘 있다는 뜻이다. 인간 존재로서 마음과 몸 그리고 인간관계, 환경이 잘 있는 것이 전인건강이다.

전인(whole person)은 마음과 몸의 통일체 곧 인격체를 뜻한다. 전인건강(holistic health)은 이러한 인격체의 건강(whole person health)을 의미한다³⁾(조무성, 1997: 52-55). 인격체의 건강은 인격체를 둘러싼 환경 곧 사회적 환경과 자연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그런 관계를 갖지 않는 인격체의 건강을 생각할 수 없다. 자연환경은 보통 환경이라는 말로 통하기 때문에 전인건강은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건강과 환경건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전인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어느 한 측면만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몸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할 뿐 아니라 인간을 생리적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관점을 의미한다. 전인교육에서는 전인을 지칭하나 덕체지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전인을 다루고 있다. 전인교육은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덕성과 지성과 체력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고 인격을 각성하는 것이다(김정환, 1998: 190). 전인교육은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를 배제하고는 성립될 수 없다.

2) 전인건강과 삶의 질과 행복의 관계

건강도시와 건강캠퍼스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한다. 전인건강은 이러한 개념들의 근본을 파고드는 중요한 개념이다.

전인건강은 삶의 질 향상을 이해하는 핵심개념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WHOQOL)의 지표로 네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전인건강의 개념영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표 3> 전인건강과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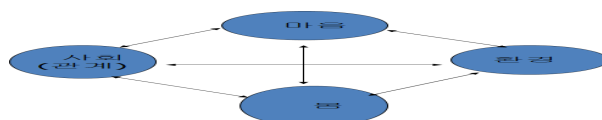
3) 「의료와 선교」, 1994년 여름/가을호. 26-44쪽.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holistic health, wholistic health, whole person health, total health 등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다. 그 중 holistic health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마음과 몸의 건강 외에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나 환경의 건강을 포함한다. 즉 총체적 건강(total health)을 의미한다. wholistic health는 마음과 몸의 통일체인 인격체의 건강에 보다 초점을 두는 개념이며, 전 인격체의 건강(whole person health)의 의미와 유사하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역 (Domain of WHOQOL)		전인건강의 차원 (Dimensions of Holistic Health)
신체적 (Physical)	통증(Pain) 기력(Energy) 수면(Sleep) 거동(Mobility) 활동(Activities) 투약(Medication) 노동(Work)	몸건강관련(Physical health related)
심리적(Psychological)	긍정적 감정(Positive feeling) 사고(think) 자존감(Esteem) 외모(Body) 부정적 감정(Negative feeling) 영성(Spirituality)	마음건강관련(Mental health related)
사 회 관 계 (S o c i a l Relationship)	관계성(Relatedness) 지지(Support) 성생활(Sex)	사회건강관련(Social health related)
환경적(Environmental)	안전 (Safety) 집(Home) 재정(Finance) 건강서비스(Servises) 이용정보(Information). 여가활동(Leisure) 물리적 환경(Environment).	환경건강관련(Environmental health related)

전인건강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을 마음과 몸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으며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과 함께 객관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국민이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행복을 확보해 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 특히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통증이 심해질수록 마음이 몹시 불안해 지고 행복하다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마음과 몸이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모욕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그의 행복은 깨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마음도 몸도 인간관계도 다 건강하여 행복하다고 한다. 그러나 집주변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을 배출하거나 심한 소음이 들리면 행복은 사라질 것이다. 마음과 몸 및 사회 및 환경의 안녕상태 모두가 중요하며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그림 1> 과 같이 마음과 몸 사회와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림 1> 마음과 몸 및 사회 및 환경의 관계

3) 전인건강과 샬롬의 관계

샬롬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인간 자신과의 관계회복,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회복,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통치고 그 산물이 샬롬이다. 성경에서 샬롬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분명하다.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평화의 원천이고 두려움을 가진 제자에게 샬롬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사 9:6, 히 7:2, 눅 2:14; 요 20:19, 21, 26; 롬 14:17).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며 서신서 곳곳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동반하여 나온다(롬 1:7; 고전 1:3; 고후 1:2; 갈 1:3; 엡 1:2; 빌 1:2; 골 1:2; 살 전 1:1; 살후 1:2; 딤펴전 1:2; 딤펴후 1:2; 딤펴 1:4; 몬 1:3; 벵전 1:2; 벵 후 1:2; 요이1:3).⁵⁾

히브리어 'shalom'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397번 신약성경에 그리스어 eirene는 89번 나온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peace)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샬롬은 안녕(weal), 복지(welfare), 완전함(completeness), 화평케 함(to cause to be at peace), 화해(to make peace), 화목제물(peace offering), 휴식(at rest), 편함(at ease), 안보(secure), 안전(safe), 유종의 미(to finish well), 번영(to prosper), 온전함(to be whole), 완벽함(to be perfect), 승리(to be victoriou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Linthicum, 2006: 5).

월터스토프(2007: 14)는 샬롬을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라고 정의한다(조무성 2008).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즉 첫째, 샬롬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을 기쁘게 섬기는 상태이다. 둘째, 샬롬은 다른 인간들과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인간 공동체가 기뻐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샬롬은 자연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물리적 환경을 기뻐하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한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것이 되었기에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한 다른 것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이룩되지 않는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가 되고 자신 내부의 모순적인 관계의 회복, 인간과 인간의 관계회복, 자연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 이루지는 것이기에 성경적인 건강, 보다 분명히 말하면 성경적 전인건강인 것이다. 성경적 전인건강은 구속을 전제로 한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건강은 안녕상태 곧 웰빙(wellbeing)으로서 직역하면 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샬롬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샬롬은 성경적 전인건강이며 총체적 안녕상태이고 총체적 웰빙이다. 이 땅에서 성경적 전인건강의 수준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따라 다르며 완벽한 전인건강수준은 존재하지 않고 일종의 연속성에서 존재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한 성경적 전인건강 곧 샬롬을 누린다(계 21: 3-4).

4) 은혜와 평강에 공흠을 넣어 은혜와 공흠과 평강이 네게 있을 찌어다(딤펴전 1:2; 딤펴후 1:2)의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다서는 공흠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유 1:2). 야고보서와 요한 일서에는 문안인사가 보이지 않고 히브리서에는 뒷부분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있을 찌어다(13:20,21). 은혜가 있을찌어다(13:24)”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계시록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찌어다(계 22:21).

2.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의 개념과 전인건강

건강 대학(healthy university)은 건강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대학의 전반적인 접근법으로서 대학공동체의 건강과 안녕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학습환경과 조직문화를 열망하는 대학이다(<http://www.healthyuniversities.ac.uk>).

건강도시는 삶의 모든 기능수행과 최대한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며 도시민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Hancock, 1993; 조무성, 2017). 건강대학과 건강도시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서로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건강 대학의 건강과 안녕 및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점과 잠재력 실현은 건강도시의 삶의 모든 기능수행과 잠재력 개발과 비슷하며 학습환경과 조직문화의 열망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과 상부상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전인건강의 관점에서 다소 복잡한 건강도시의 개념을 분석하면 건강도시의 개념이 분명해지며 대학을 비롯한 다른 건강생활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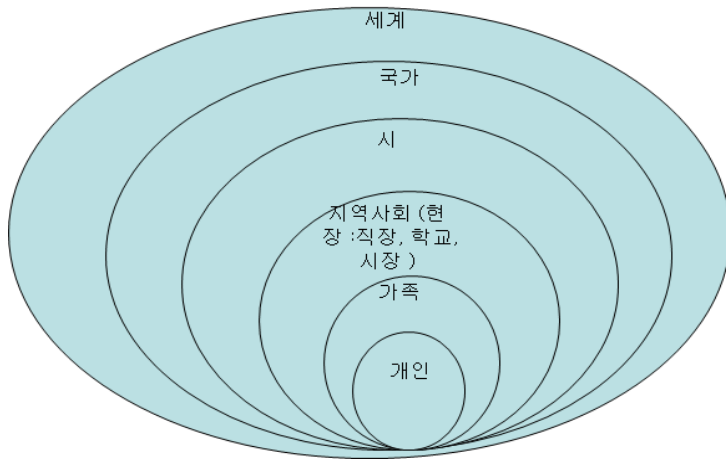
<표 4> 건강도시 개념의 요소분석

따라서 건강도시는 시민의 전인건강 즉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웰빙(wellbeing)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의 마음과 몸 및 사회와 환경이 잘 있도록 하는 도시이다.

건강대학은 학생, 교수, 직원, 방문객의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대학이다. 건강캠퍼스의 개념은 넓게 보면 초중고 대학에 적용이 된다. 대학 건강캠퍼스 조성이 있고 초중고의 건강캠퍼스 조성이 있고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건강캠퍼스는 대학의 건강캠퍼스를 의미한다. 대학 건강캠퍼스는 대학의 구성원이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캠퍼스이다. 즉 대학구성원의 마음건강, 몸건강, 사회건강, 환경건강을 위해 애쓰는 캠퍼스이다. 살롬캠퍼스는 성경적 전인건

강을 위해 애쓰는 캠퍼스이다. 즉 예수의 구속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환경적 건강을 위해 애쓰는 캠퍼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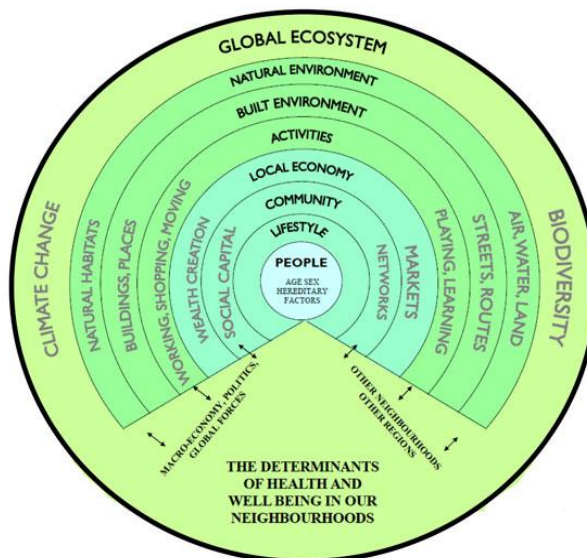
전인건강과 삶은 개인, 가정, 커뮤니티, 도시, 국가, 세계로 분석수준을 넓혀갈 수 있다.



<그림 2> 전인건강과 삶의 수준의 확장범위

III. 건강캠퍼스 조성 전략과 삶의 질 통합 변혁 모형

1. 건강의 사회적 결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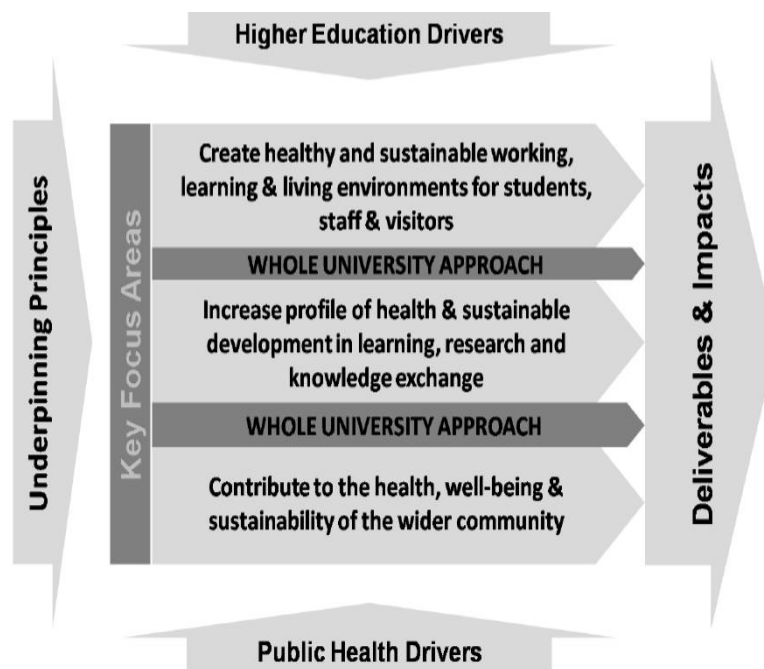


<그림 3> 건강의 사회적 결정모형

Barton, H. and Grant, M., (2006) A health map for the local human habitat,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126 (6) pp252-261.

바톤과 그랜트(Barton & Grant)는 지역 주민 삶의 건강지도를 통해 건강에 미치는 다양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의 건강과 웰빙의 요인으로 연령, 성별, 유전적 요인, 생활방식, 지역사회, 지역경제, 일상활동, 시설환경, 지구생태체제를 들고 있다. 바톤과 그랜트는 1991년 달그랜과 화이트(Dahlgren & White)의 건강의 사회모델을 발전시킨 것이다. 달그랜과 화이트는 연령, 성별, 체질적 요인, 개인의 생활방식, 사회·커뮤니티 네트워크, 삶과 일의 조건들, 일반사회경제, 문화환경 조건을 들고 있다. 바톤과 그랜트가 건강의 사회모델을 발전시켜 환경적 결정요인을 더한 점이 돋보인다. 도시와 대학을 비롯한 건강한 생활터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이 모형은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2. Dooris et. al의 건강대학의 건강한 생활터 접근법



건강증진대학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과 지속가능한 총체적 대학접근을 통해 프로파일을 증가 시키며 보다 넓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 및 지속가능성을 기여하도록 한다. 주요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Dooris 등의 건강생활터 접근법의 주요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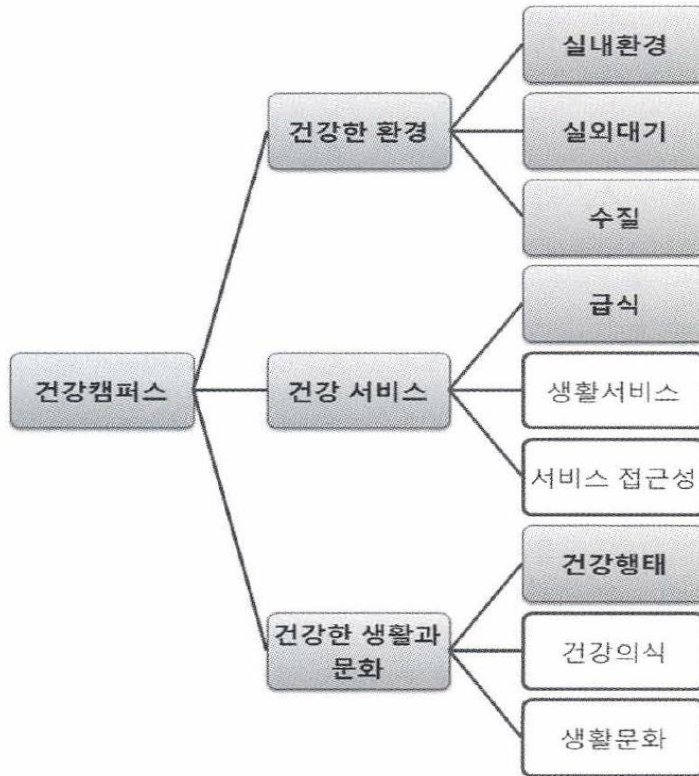
주요항목	
전제적 원리 (underpinning principles)	대학과 공중보건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등과 다양성, 참여와 역량강화, 협력, 지속가능성, 전인건강과 체제적 건강(holistic and whole system health), 근거인식과 혁신적인 실천, 평가, 학

	습과 지식의 교환이 포함
추진요인(drivers)	은 건강대학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등교육 추진요인(higher education driver)와 공중보건추진으로 나누어 짐. 전자는 학생충원, 상호소통, 경험과 업적, 폭 넓은 참여, 직원의 업적, 조직의 생산성이 포함된다. 후 자는 술, 약물오용, 정신적 복지, 비만, 음식과 신체활동, 성건강, 기후변화, 불평등의 감소 등이 해당됨.
전체적 대학접근 (whole healthy university approach)	높은 수준의 사명과 지도력,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 참여, 높은 수준의 건강관련사업을 체제수준의 조직발전과 변화에 통합을 포함. 책임을 표명하는 진취적이고 체계적 과정, 건강관련활동의 이용과 연결, 요구도와 능력의 평가, 우선순위 설정, 계획과정의 동의 집행 점검, 광범위한 평가, 업적의 축하 등을 포함.
초점 영역(focus area)	생활터의 환경, 핵심사업,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포함.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합하고 지역과 국가와 세계수준의 건강과 안녕과 지속가능성에 기여
제공되는 것들(deliverables)	보다 지지적인 작업과 학습환경, 높은 수준의 건강과 복지 서비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 조달 및 출장연회 서비스, 접근가능한 스포츠와 여가 및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문화시설, 개인 사회적 시민의식 발전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지지,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건강과 지속가능발전의 책임감의 이해와 고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동반자로 로서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강화된 제도수준의 책임
영향(impacts)	사업의 업적과 생산성, 학생과 교직원의 충원 증가, 상호소통과 성취, 공공서비스의 협약에 기여하는 능력의 향상, 건강과 지속가능성의 증가된 긍정적 영향과 감소된 부정적 제도적 영향, 가족과 지역사회, 지역사회, 정치과정 내에 지역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정도

3.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5개년 사업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사업은 건강한 환경, 건강관련서비스, 건강한 생활과 문화라는 세계영역에서 우선 보건대학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체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세 영역에서 기초진단 조사를 행하였다(유승현, 2009). 3개 영역의 7개 부문(실내공기질, 석면, 실외대기, 수질, 미생물, 영양, 건강행태)으로 나누어 조사를 했다.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4월 10일까지 7개 부문에 각각 담당하는 연구실이 있어 진단조사를 진행했다.

<그림 4>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5개년 계획



< 표 6> 서울대 건강캠퍼스의 기초진단조사

조사내용	연구실
실내공기질 조사	환경보건학과 실내환경 및 노출 평가실
석면 조사	산업환경 보건연구실
실외대기 조사	대기 환경 연구실
수질 분석	환경 독성학 연실
미생물 조사	보건미생물학 연구실
학교식당 메뉴	보건학과 보건영양학 연구실
흡연과 음주	복합질환 및 유전체역학 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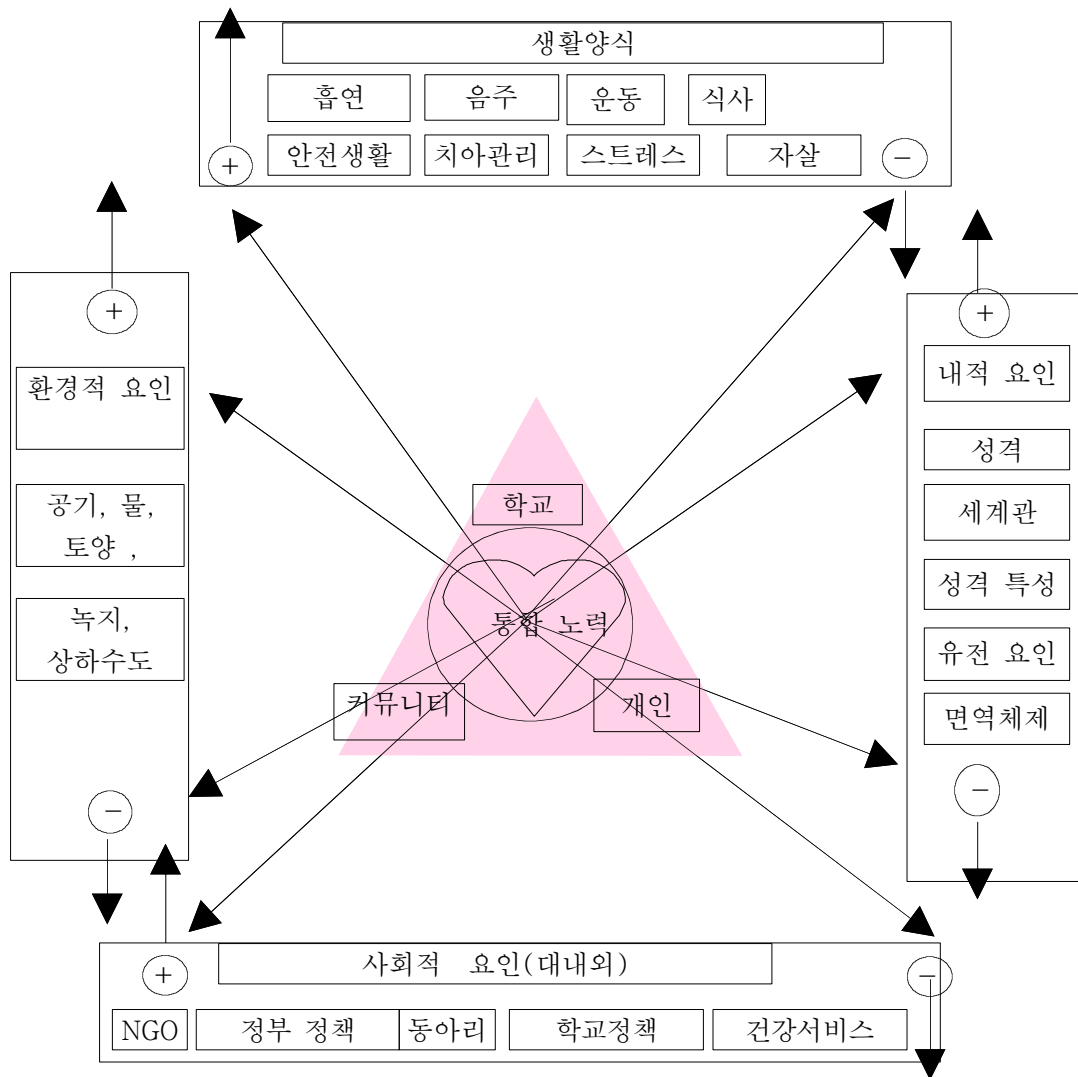
건강캠퍼스의 조사결과를 부문별로 분석하여 정리하여 대학행정본부와 검토를 하여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 먹는 물 관리, 식당 메뉴의 나트륨 함량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시행조치가 있었고 시정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서울대 건강캠퍼스 조성 5개년 계획은 건강한 환경 건강서비스, 건강한 생활과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각 세가지 하위영역으로 9가지 하위영역을 가지고 진단과 해결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4. 건강캠퍼스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변혁 모형

건강도시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변혁모형(Integrative Quality of Life Transformation(IQoLT Model)은 시민과 정부와 커뮤니티가 공동체적 사랑을 가지고 시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인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모형이다(조무성, 2017).

건강캠퍼스의 통합적 삶의 질의 모형은 건강한 생활터 접근법으로 도시 대신에 대학 캠퍼스에 적용한 것이다. 여기서 학교는 학교 당국을 의미한다. 학교 행정을 수행하는 정책 결정시스템이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시정부에 해당된다.



<그림 6> 건강캠퍼스 통합된 삶의 질 변혁 모형

이곳의 커뮤니티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다양한 조직들이다.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전체의 학교당국의 외부사회를 의미한다. 커뮤니티는 학생회, 동아리, 기타 자발적 단체를 포함한다.

이곳의 구성원은 학생과 교수와 직원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방문객이 학교구성원이 될 수 있다. 대학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내

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다. 외적 요인은 생활방식,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진다.

+는 긍정적 요인, -는 부정적 요인을 의미한다. 상향 화살표 긍정적 요인을 보호내지 촉진하는 것이고 하향 화살표는 부정적 요인을 감소내지 제거하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시대에 달라지며 건강캠퍼스 진단 지표도 달라진다. 삶의 질을 전인건강으로 보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마음건강, 몸건강, 사회건강, 환경건강 또는 복합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각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5. 공적신학과 살롬 캠퍼스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변혁모형

앞에서 전인건강과 살롬을 정의했다. 전인건강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살롬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살롬을 성경적 전인건강으로 정의했다. 예수님을 구속을 전제로 해서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이라는 뜻이다. 엄밀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살롬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자신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가 부실할 때는 온전한 살롬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복음전도와 제자교육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맞물려 있다. 공적신학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관심사와 문제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신학이다. 이러한 공적신학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표 7> 공적신학의 다양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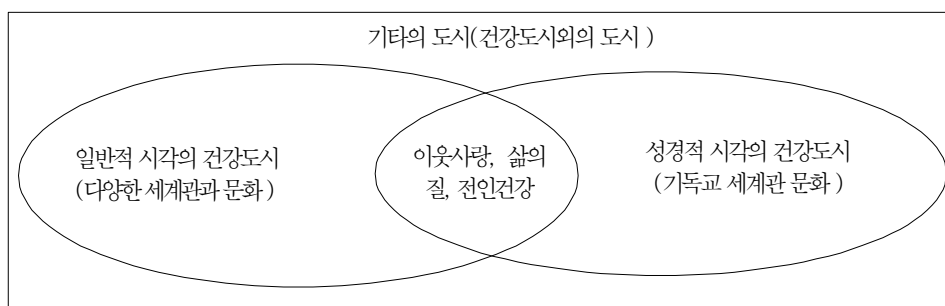
학자	정의
버레턴 버어그	교회나 다른 종교단체, 일반사회에 의해서 말해지고 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전제와 기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공적 이슈, 제도 상호작용에 대한 신학적으로 알려진 기술적, 규범적, 공적 담론 ⁶⁾
포레스터	포레스터는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성찬을 시행하는 고유한 기능 이전에 도시의 복지(welfare)를 추구하는 신학 ⁷⁾
그래햄과 로이	도시의 공통된 삶, 시민으로서 소명 완성의 삶, 공동유익의 언어에 기여하는 삶, 공유된 가치의 관점으로부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고 협조하는 삶을 나누는
장신근	공적신학을 기독교 신앙의 실천과 사사회 현상에 직면하여 그리스도 개인들의 공적신앙 형성과 공적 공동체로서의 공교회 형성을 통하여 여러 차원의 공적 삶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이들이 확고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여러차원의 공적 삶에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가치관을 다른 전통이나 학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이를 변형시켜 나가는데 기여하는 신학 ⁹⁾
조무성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안팎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관심과 문제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학제적 접근을 추구하는 실천지향적 신학 ¹⁰⁾

이들 공적신학자 가운데 포레스터 그리고 그래햄과 로이는 도시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포레스터는

공적신학의 특징으로 1) 공적 신학이 회개와 회심의 희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복음 주의적 신학(evangelical theology)은 아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3) 종종 자신의 의제로서 세상의 의제나 지역의 의제를 택하며 좋은 사회 건설, 약의 제어, 폭력 억제, 국민통합, 공적 영역내의 화해 등을 돕기 위해서 신앙의 금고 (treasury of faith)로부터 특징적이고 건설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¹¹⁾ 그래함과 로이의 공적신학의 특징으로 1) 우선 신앙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의 쟁점에 관심을 집중 하는 신학이고 2) 세속사회에서 특히 일터에서 신앙적인 증인으로 무장되도록 하는 지도와 형성과정에 관여되어 있으며 3) 정치가들의 신앙의 사명이 어떻게 그들의 공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그것을 공적광장으로 어떻게 중재하여 선택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¹²⁾ 포레스터는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에 도시의 포괄적인 맥락에 도시의 삶의 주요성격에 연구의 관심을 둔다.

공적신학은 이웃사랑과 삶의 질 향상과 전인건강을 매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통분모를 키워가는 것이다. 이웃의 마음과 몸과 사회와 환경의 고통의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이것은 이웃사랑이 복음전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말씀하신다(막 12:30,31). 너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에 자기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기 사랑은 참사랑이다.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와 성경적 전인건강인 샬롬을 위해 애쓰는 도시는 공통분모와 함께 복음을 믿고 구속을 받는 다는 것이라는 차이점도 있다. 다음 그림은 일반적 건강도시와 성경적 건강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준다.

<그림 7> 일반적 건강도시와 성경적 건강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조무성, 건강도시와 샬롬커뮤니티의 관계,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만남, 「신앙과 학문」 366쪽

공적신학의 이해를 하는데 있어 건강도시와 샬롬커뮤니티의 특성을 비교하면 그 공통분모와 차

6) E. Harold, Breintenberg, “ What is Public Theology” In Deirdre King Hainsworth and Scott R.Paeth (eds). *Public Theology and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r of Max L. Stackhouse*. Willia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3-9.

7) Ducan B. Forrester, op.cit.

8) Graham Elaine & Stephen Lowe, *What Makes a Good City?: Public Theology and the Urban Church* (London: Darton, Longman & Todd Ltd., 2009), 5-6.

9) 장신근,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공적 역할논의에 대한 지형탐연구,” 『공적신학과 공적 교회』 (서울: 킹덤북스, 2010), 39-72

10) 조무성, “ 카이퍼와 공적신학의 영향: 한국교회의 발전적 적용,” 「교회와 문화」, 33(2014), 53-54.

11) Forrester op.cit

12) Elaine Graham & Lowe Stephen, op.cit. 4-5.

이점이 분명히 들어난다.¹³⁾

<표 8> 살롬커뮤니티와 건강도시의 특징

이사야서의 살롬공동체의 특징	건강도시의 특징	전인건강 차원
모든 사람을 위한 남부럽지 않고 위생적이며 안전하며 여유 있는 주거(65:21-22)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환경건강
적절한 수입과 삶의 의미와 초점을 제공하는 직업(65:21-22)	현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체제	환경건강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65:19,23), 안정되고 안전하며 상호지지적인 이웃(65:25)	강한 상부상조적이며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사회건강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65:19,23)	시민의 삶과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시민이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	사회건강
부가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람들 간에 소득과 부와 직위와 신분에 있어서 큰 격차가 없는 것(21-23)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과 직업)의 충족노력	사회 건강, 몸 건강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65:19,23)	다양하고 폭넓은 접촉의 기회와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넓고 다양한 경험과 자원의 접근	사회건강
부가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람들 간에 소득과 부와 직위와 신분에 있어서 큰 격차가 없는 것(21-23)	다양하고 활력 있으며 혁신적인 시의 경제	사회건강
모든 사람을 위한 남부럽지 않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여유 있는 주거(65:21-22)	도시의 과거와 거주자의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함께 다른 집단과 개인들의 연결을 격려	사회건강
	이전의 특성과 양립하고 고양할 수 있는 형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장수에 기여하고 유아사망을 종식시키는 보건의료(65:20)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국민 건강 및 질병치료 서비스	몸건강
건강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환경(65:20)	고도의 건강상태(높은 수준의 적극적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몸건강

출처 : 건강도시와 살롬 커뮤니티의 관계 :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만남 364 쪽

이사야 65장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롬을 완전히 누리는 삶을 나타낼 수 있지만 현재로는 불완전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롬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¹⁴⁾ 린시쿰(Linthicum)은 이사야 65장 19-25절을 살롬커뮤니티의 특징과 연계시킨다.¹⁵⁾ 공적신학의 관점에서 본 건강都市는 살롬커뮤니티이며 살롬시티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적 건강도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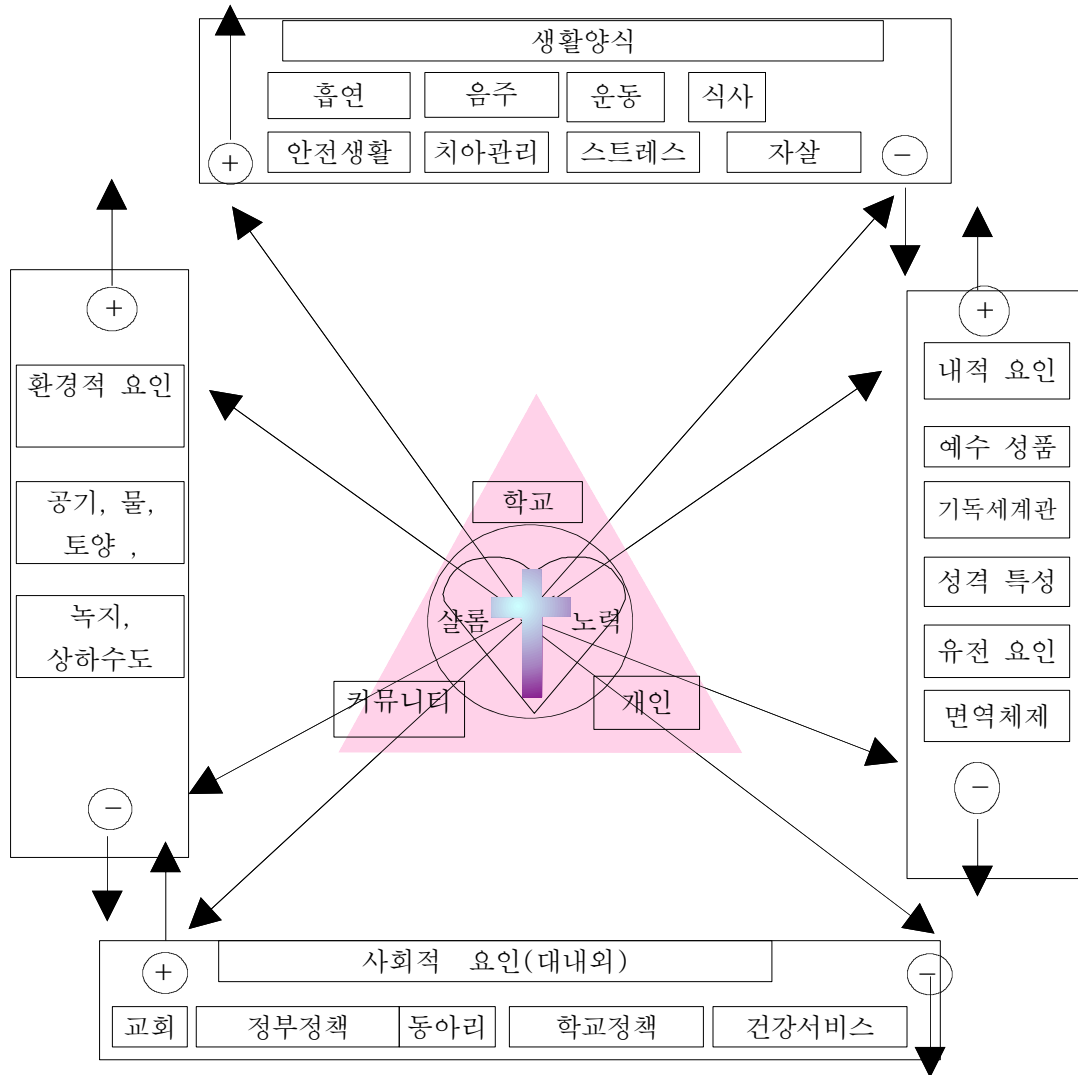
살롬都市는 건강한 생활터의 접근과 마찬가지로 살롬생활터 접근법이 적용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터에는 학교 직장 병원 도시 국가 지구촌 등 사람이 살고 있기에

13) 조무성, 건강도시와 살롬커뮤니티의 관계: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만남. 『신앙과 학문』 13(3), 2008.

14) 김서택,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469

15) Robert C. Linthicum, *Building a People of Power: Equipping Churches to Transform Their Communities*. Seattle, WA, Authentic and World Vision, 2006, 4-22, 린시쿰이 살롬커뮤니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city를 성읍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살롬시티(shalom city)라는 명칭도 건강도시와 비교 대조되는 개념으로 의미가 있다.

살롬이 시각에서 살롬가정, 살롬학교, 살롬도시, 살롬병원, 살롬섬, 살롬국가, 살롬 지구촌의 개념이 가능하다.



<그림 9> 살롬 캠퍼스 통합된 삶의 질 변혁 모형

건강캠퍼스 통합적 삶의 질 변혁 모형과 살롬 캠퍼스 통합된 삶의 질 모형의 차이점은 개인과 커뮤니티 학교의 삼자가 형성하는 하트 모양의 공동체 사랑에 십자가를 넣고 내적 요인에서 세계관 대신에 기독교세계관을 성격 대신에 예수성품을, 사회적 요인의 NGO 대신에 교회를 넣은 점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살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성품과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살롬 캠퍼스의 기초가 된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독교 세계관이 곧 바로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경말씀에 입각해서 받아드려지고 배워나갈 때 바르게 형성된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메시지에 의미를 새겨 둘 필요가 있다(벵후 3:18). 그동안 신학교나 미션계통의 학교에서 여러 분쟁에 휘말리고 믿지 않는 구성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하고 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교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도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살롬을 전해야 할 교회나 미션계통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진단하고 치유하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절실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정신을 표방하고 가는 기독교대학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러지 못하기에 교회와 기독교에 더욱 실망하여 멀리하게 된다.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여주는 모델 살롬 캠퍼스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느헤미야 회개와 공동체의 정신으로 그 대학에 일하는 보직자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롬을 누리는 명품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살롬 대한 캠퍼스 조성의 첫 단추이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기독교 대학의 각 분야의 교수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캠퍼스를 진단하고 적절한 대책을 찾고 학교의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공적신학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구성원들과 공통관심사를 찾아 내어 그들의 고통을 감싸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캠퍼스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함으로 물론이다.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기독교인들과의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기독교 대학은 교회를 갖고 있고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천안에 기독교대학인 백석대학이나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은 건강캠퍼스를 넘어 건강도시 천안과 건강도시 포항이 건강도시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롬시티 천안과 살롬시티 포항이 되도록 천안과 포항의 지역사회의 교회들과 기독교기관들과 지혜롭게 협력할 것이 요구된다.

성경적 건강캠퍼스를 진단할 때 일반적 건강캠퍼스의 진단 자료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진단과 대안의 개발을 하는 방법은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 요약과 한계 및 과제

지금까지 서론에서 제기한 네 개의 질문에 답을 추구해 왔다. 다음은 건강캠퍼스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의 핵심개념인 전인건강은 무엇인가?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추진할 것인가? 기독교 관점에서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 조성의 논리와 전략은 무엇인가? 대한 간략한 답이다.

첫째, 건강캠퍼스 운동은 1987 년에 시작된 WHO의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건강증진대학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영국의 랭카스터 대학과 중앙 랭크셔 대학 등에서 헌신된 학교책임자를 비롯한 보직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작되어 현재는 건강대학(healthy Universities)의 명칭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며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10 건강한 국민(Healthy People 2010)과 2020 건강한 국민 (Healthy People 2020)의 하위 영역에서 미국대학건강협회(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ACHA)를 통해 건강캠퍼스 2010과 건강캠퍼스 2020 사업을 진행해 왔다.

둘째, 건강도시와 건강캠퍼스를 이해하는 핵심개념인 전인건강은 생활터 구성원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이다.

셋째, 영국의 건강대학네트워크와 미국의 건강캠퍼스 2020과 국내의 2009년 서울대학의 건강캠퍼스의 출범을 참고하며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성과 지표를 토대로 건강캠퍼스 통합적 삶의 질 모형에 입각해서 캠퍼스 구성원의 전인건강을 위해서 캠퍼스를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부정적 요인을 감소·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보호·발전 하는 전략개발을 통해 건강캠퍼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샬롬 캠퍼스 통합적 삶의 질 변혁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독 세계관을 무장된 기독인이 학교당국의 일원으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며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쓰며 그들의 영적 통뿐 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는 건강캠퍼스와 샬롬캠퍼스를 진단하는 구체적 지표를 마련하지 못한 점과 전인건강의 관점에서 대학부서의 조직을 진단하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건강도시에서 했듯이 건강캠퍼스와 샬롬캠퍼스의 진단지표를 가지고 실제로 대학캠퍼스와 대학조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서택 (2008).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469
- 김영복 (2015). 건강캠퍼스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대학사업의 필수영역 및 추진전략.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32:25-35.
- 김정환 (1998) 교육이란 무엇인가: 전인교육의 이념과 방법. 한국교육연구소 주최 2회 교육사상 강좌 강의녹취록.
-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200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서울: IVP, 14.
- 유승현 (2009). “건강한 대학 캠퍼스 조성 사업 : 건강캠퍼스 만들기.” 『보건학논집』 46:1-6
- 이성희 등 (2009).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조성연구 : 대기, 수질, 및 표면의 미생물 연구.” 『보건학논집』 46:27-31.
- 장신근 (2010)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공적 역할논의에 대한 지형탐연구.”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서울: 킹덤박스, 2010), 39-72
- 조무성, (2017). “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 홍성군
- 조무성 (2014). “ 카이퍼와 공적신학의 영향: 한국교회의 발전적 적용.” 『교회와 문화』, 33: 53-54.
- 조무성 (2008). “ 건강도시와 샬롬커뮤니티의 관계: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만남. 『신앙과 학문』 13(3): 364.
- 조무성 (2007) “건강도시와 더불어 건강캠퍼스 만들기.” 고대신문(4.8).

조무성 (1997) “의료전문화와 전인건강문화- 성경적 세계관의 적용” 『신앙과 학문』 52-55

황성호 등 (2009) “건강캠퍼스를 위한 건축물 석면 함유량 조사” 『보건학논집』 46:45-53,

Barton, H. and Grant, M. (2006) A health map for the local human habitat,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126 (6) pp252-261

Bennis, Warren, (1968).

Breitenberg, E. Harold,(2010). “What is Public Theology” In Deirdre King Hainsworth and Scott R.Paeth (eds). *Public Theology and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r of Max L. Stackhouse*. Willia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3-9.

Dooris (2010). “Healthy Universities : Experiences in England, Lessons Learnt.”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Uclan)

Forrester, Duncan B. (2004). “The Scope of Public Theology.” , 17(5), . 6-7.

Hancock, Trevor (1993). “The Evolution, Impact, and Significance of Healthy Cities/Healthy Communities.” . Spring, 14(1):5-18.

Graham Elaine & Stephen Lowe (2009), *What Makes a Good City?: Public Theology and the Urban Church* . 5-6, London: Darton, Longman & Todd Ltd.,.

Linthicum, Robert (2006). *Building a People of Power: Equipping Churches to Transform Their Communities*. 5. Seattle, WA. Authentic and World Vision.

Sheinfeld-Gorin & Arnold (2006). *Health Promotion in Practice* . 3-17 Jossey-Bass.

Stock et.al (2010). “Network Evaluation : Principles, Structures and Outcomes of German Working Group of Health Promoting Universities. ” *Global Health Promotion*“ 17:25

Tsouros et.al (1998). *Health Promoting Universities: Concept, Experience and Framework for Action*

인터넷 자료

<https://www.acha.org/healthycampus>)

<http://www.healthyuniversities.ac.uk/>).

(요약) 대학 건강캠퍼스 조성과 건강도시 : 전인건강과 공적신학

서론에서 제기한 네 개의 질문에 답할 추구를 했다. 다음은 건강캠퍼스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의 핵심개념인 전인건강은 무엇인가?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추진할 것인가? 기독교 관점에서 건강캠퍼스와 건강도시 조성의 논리와 전략은 무엇인가? 대한 간략한 답이다.

첫째, 건강캠퍼스 운동은 1987 년에 시작된 WHO의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건강증진대학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영국의 랭카스터 대학과 중앙 랭크셔 대학 등에서 헌신된 학교책임자를 비롯한 보직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작되어 현재는 건강대학(healthy Universities)의 명칭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며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10 건강한 국민(Healthy People 2010)과 2020 건강한 국민 (Healthy People 2020)의 하위 영역에서 미국대학건강협회(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ACHA)를 통해 건강캠퍼스 2010과 건강캠퍼스 2020 사업을 진행해 왔다.

둘째, 건강도시와 건강캠퍼스를 이해하는 핵심개념인 전인건강은 생활터 구성원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이다.

셋째, 영국의 건강대학네트워크와 미국의 건강캠퍼스 2020과 국내의 2009년 서울 대학의 건강캠퍼스의 출범을 참고하며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성과 지표를 토대로 건강캠퍼스 통합적 삶의 질 모형에 입각해서 캠퍼스 구성원의 전인건강을 위해서 캠퍼스를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부정적 요인을 감소·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보호·발전 하는 전략개발을 통해 건강캠퍼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살롬 캠퍼스 통합적 삶의 질 변혁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독교 세계관을 무장된 기독교인이 학교당국의 일원으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며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쓰며 그들의 영적 통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는 건강캠퍼스와 살롬캠퍼스를 진단하는 구체적 지표를 마련하지 못한 점과 전인건강의 관점에서 대학부서의 조직을 진단하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건강도시에서 했듯이 건강캠퍼스와 살롬캠퍼스의 진단지표를 가지고 실제로 대학캠퍼스와 대학조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관C/03/논평문/

대학 건강캠퍼스 조성과 건강도시 : 전인건강과 공적신학에 한 논평

백성희(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보건의료인으로 간호사인 저는 조무성교수님의 '대학 건강캠퍼스 조성과 건강도시' 논문을 읽고 전문인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해야 할 논평을 대신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건강캠퍼스 구성과 건강도시에 대해 4가지로 요약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건강캠퍼스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건강캠퍼스 운동이 1987년에 시작된 WHO의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건강증진대학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영국의 랭카스터 대학과 중앙 랭크셔 대학 등에서 헌신된 학교책임자를 비롯한 보직자들의 공감대로 시작되어 현재는 건강대학(healthy Universities)의 명칭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며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2010 건강한 국민(Healthy People 2010)과 2020 건강한 국민 (Healthy People 2020)의 하위 영역에서 미국대학건강협회(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ACHA)를 통해 건강캠퍼스 2010과 건강캠퍼스 2020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본문에도 기술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초중고 건강증진학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줄이고 있고 건강도시에 가입한 시군구에서 건강한 학교사업을 해온 적이 있지만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사업은 이루지 않고 있고 대학에 초점을 둔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은 건강캠퍼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학정원의 급감, AI와 4차 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응전략 부족, 취업환경의 불확실성, 대학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대학의 외적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도전에 직면해 존재목적과 이념이 빛을 잃어가고 있고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착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지 않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만 키우면 된다는 데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인간의 생명과 온전한 인격체의 형성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기독교 대학의 경우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건강캠퍼스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이에 절대 공감합니다.

둘째, 건강도시와 건강 캠퍼스를 이해하는 건강도시와 건강캠퍼스를 이해하는 핵심개념인 전인 건강은 생활터 구성원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는 5가지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적 존재, 영적 존재, 정신적 존재, 사회적 존재, 환경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만 국한한 건강개념은 총체적인 성격이 결여되어 온전한 건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저자는 전인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인간을 어느 한 측면만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인간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의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간호학에 있어 간호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 간호의 대상인 인간에게는 전인간호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셋째, 저자는 영국의 건강대학네트워크와 미국의 건강캠퍼스 2020과 국내의 2009년 서울대학의 건강캠퍼스의 출범을 참고하여 건강도시의 개념, 특성과 지표를 토대로 건강캠퍼스 통합적 삶의 질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에 입각해서 캠퍼스 구성원의 전인건강을 위해서는 캠퍼스 내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적 요인을 감소·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보호·발전하는 전략개발을 통해 건강캠퍼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캠퍼스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건강캠퍼스란 궁극적으로 캠퍼스 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캠퍼스 구성원인 인간은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 삶의 질 영향요인을 보호·발전하는 전략개발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져 과연 맞춤형 전략개발이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3쪽 원고의 내적요인에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성별, 종교, 나이 등의 기본 요인이 빠져 있어 이를 반영하기를 제안합니다.

넷째, 샬롬 캠퍼스 통합적 삶의 질 변혁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독 세계관을 무장된 기독교인이 학교당국의 일원으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며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쓰며 그들의 영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장에서 샬롬을 성경적 전인건강으로 정의한 것이 본인에게는 매우 신선합니다.

저자의 이 주장에 대해 본인은 기독교 대학의 캠퍼스 구성원으로 책임감이 느껴지며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여주는 모델 샬롬 캠퍼스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대학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샬롬을 누리는 명품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세 번째 '건강캠퍼스 통합적 삶의 질 모형'에 내적요인으로 종교를 추가한다면 굳이 네 번째 '샬롬 캠퍼스 통합적 삶의 질 변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절한 모형이 되나 모형이 두 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자께서 고민하셔서 통합모형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다양한 건강캠퍼스를 전인건강의 관점에서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